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아태비즈니스연구)
Vol. 13, No. 4, December 2022 (pp.91-107)
https://doi.org/10.32599/apjb.13.4.202212.91

APJB
ISSN 2233-5900 (Print)
ISSN 2384-3934 (Online)

지역 금융포용 수준이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

윤상용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김진희
MG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임연구원

박순홍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The Effect of Regional Financial Inclusion Level on Financial Cooperatives' Management Indicators

Sang-Yong Yun[a], Jin-Hee KIM[b], Soon-Hong Park[c]

[a]Department of Economics, Chosun University, South Korea
[b]Researcher,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South Korea
[c]School of Busines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2, Revised 15 December 2022, Accepted 23 December 2022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quantitatively examines the level of financial inclusion of a microfinance institution in each region and how this is changing recently, and examines the level of financial inclusion by region and various financial characteristic factors related to it. It was empirically verified what kind of significant impact actually has on the institution's major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stability, profitability, efficiency, and public interest).
Design/methodology/approach - It was confirmed that the institution's financial inclusion index declined rapidly after 2015 as a whole, al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y region depend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umber of branches per 100,000 adult population is steadily increasing nationwide, it was found that, contrary to what is known, the simple decrease in the number of branches of the institution was not the main cause.
Findings -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nstitution's efforts for financial inclus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profitability, stability, efficiency, and public interest, and that the institution pursues profitability, efficiency, stability, and public interest. showed that some trade-offs exist. In other words, overall, it was analyzed that profitability of the institu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fficiency, and efficiency has a positive effect on stability and public interes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Since the institution's efforts to improve its profitability do not have a negative impact on its s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t is judged that it is important to take a strategic stance, so excessive loan supply that exceeds the scope of the institution's own control needs to b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More detailed financial supply strategies and business management capabilities that enhance the asset soundness and management efficiency of safes need to be demonstrated.

Keywords: Financial Cooperatives, Financial Inclusion, Relationship Banking, DEA Analysis
JEL Classifications: C12, C83, D40

[a] First Author, E-mail: syyun@chosun.ac.kr
[b] Co-Author, E-mail: jinhi.kim@kfcc.co.kr
[c] Corresponding Author, E-mail: soonhong_park@cnu.ac.kr
© 2022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서민금융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시장 내 신용공급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기관 중 은행권으로부터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된 금융 취약계층을 가능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분류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서민금융은 이른바 제2금융권으로 지칭되는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고, 이들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민의 금융접근성과 금융포용을 가능한 확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특정 지역을 영업 구역[1]으로 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두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을 가능한 금융포용하고, 다양한 지역 내 금융수요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및 비효율성을 가능한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민금융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로, 지역의 우량 고객들이 대거 은행권으로 이탈하면서 고객기반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목적의 금융지원(이차보전, 신용보증, 지원금 등)을 확대해 왔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그리고 이들의 고객 신용위험 평가 및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의 시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서민금융기관의 설립 취지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의 이바지'한다기보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이윤 추구'에 보다 더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이른바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서민들이 스스로 만든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초 절대빈곤 하에서 고리채에 시달리던 농촌을 재건하고, 이를 위한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통적 주민협동체와 서구적 협동조합의 원리를 가미한 소위 한국형 주민협동조합운동으로 출발하였고, 1982년 말 「새마을금고법」의 제정 이후 그 제도가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의 최근 12년 자료를 활용하여, 2022년 2월 기준 전국 각지에 총 3,240여 개의 지점, 2,150만 명의 고객 수, 그리고 총자산 규모가 약 250조 원인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각 지역에 대한 금융포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는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별 금융포용 수준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재무 특성요인이 새마을금고의 주요 경영성과지표(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공익성)에 실제로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실증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주요 현황 및 경영지표 등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서민금융 관련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4장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 및 관련 특성요인, 그리고 이들의 경영성과지표에 대한 영향력 등을 실증 검증한 후, 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 등을 정리한다.

---

1) 서민금융기관의 여・수신 영업 가능 구역은 지리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실제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집중을 위해 구체적으로,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두고 있고, 조합원은 시・군・구 등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 농협은 전체 대출의 1/2, 기타 상호금융은 1/3의 의무대출 비율이 존재한다. 그리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대출영업권역은 각각 10개(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강원/제주)와 9개의 권역으로 구분되고, 권역 외 대출은 1/3 이하로 제한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정부는 1970년대 비제도권 금융 업자를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의 금융회사로 인가해주면서 지역금융회사로의 역할을 요구하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업 구역 내에서 주로 영업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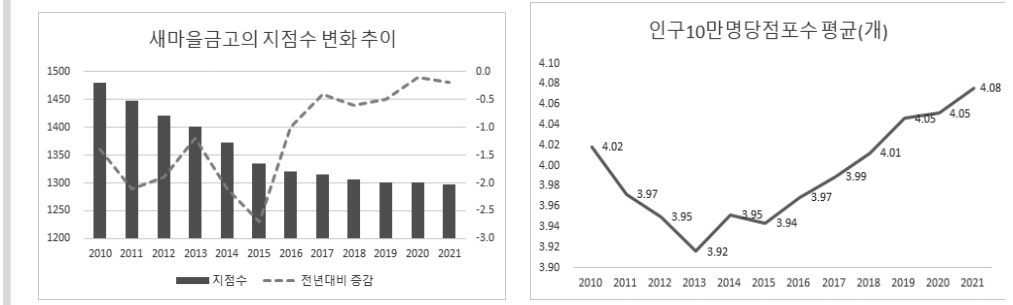
Ⅱ. 새마을금고의 현황 및 경영성과

1. 현황

서민금융은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가능한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고객 정보 취득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이른바 '서민금융기관'이라 분류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다. 즉, 서민금융기관(제2금융)은 은행권(제1금융)에서 저신용·저소득·저담보 등을 이유로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금융고객을 위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의 금융거래 경험과 신용정보 축적을 통해 보다 세밀한 대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서민금융 분야에 특화된 상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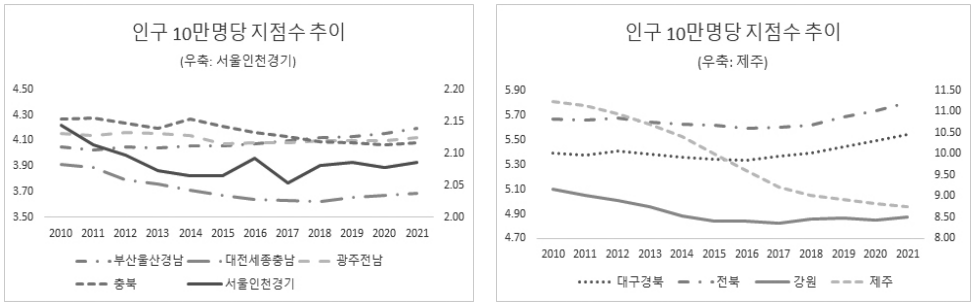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현황을 검토해 보면, 먼저 최근 금융기관의 대형화·비대면화 추세로 인한 지점수 감소전략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지점수도 〈Fig.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빠르게 감소하였고, 이 감소세는 2015년 이후 더 빨라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인구 10만 명당 새마을금고 지점수의 경우, 2013년 3.92개에서 2021년 4.08개로 오히려 증가해 왔는데, 이는 알려진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지점수 감소가 지역 내 금융수요자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 1. 전국 새마을금고의 지점수 변화 추이



더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인구 10만 명당 지점수의 변화 추이를 9개 권역 단위별로 살펴보았다. 〈Fig. 1〉의 전국 단위에서 살펴본 결과와는 달리 〈Fig. 2〉의 권역별 인구 10만 명당 지점수의 변화 추이는 적어도 일부 권역에서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충북, 대전·세종·충남, 강원 등의 권역에서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제주에서의 감소 폭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Fig. 2. 새마을금고의 권역별 인구 10만 명당 지점수 변화 추이



2. 경영성과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은 예대마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가지는 것으로, 그리고 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위해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의 거래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마을금고의 담보대출 비중은 2010년 약 91.4% 수준에서 2021년 95.6%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ig. 4〉에서 새마을금고의 예대금리차는 2010년 약 7.4% 수준에서 2021년 2.4%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수익성(ROA)도 2016년까지 빠르게 하락하다가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무 건전성 지표인 새마을금고의 순자본비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안정성과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다만, 여수신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8년도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크게 상승하였지만, 이 또한 최근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또한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Fig. 3.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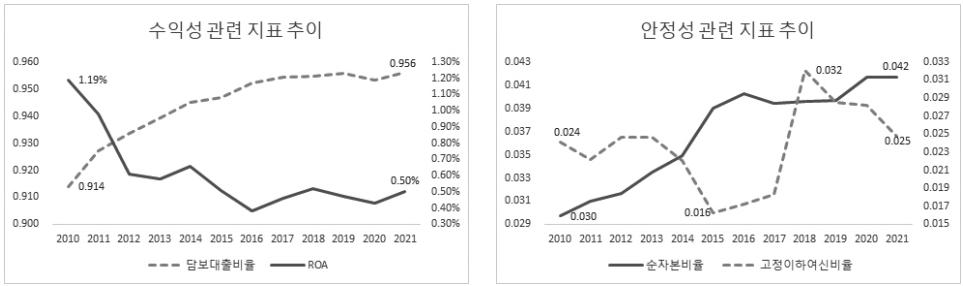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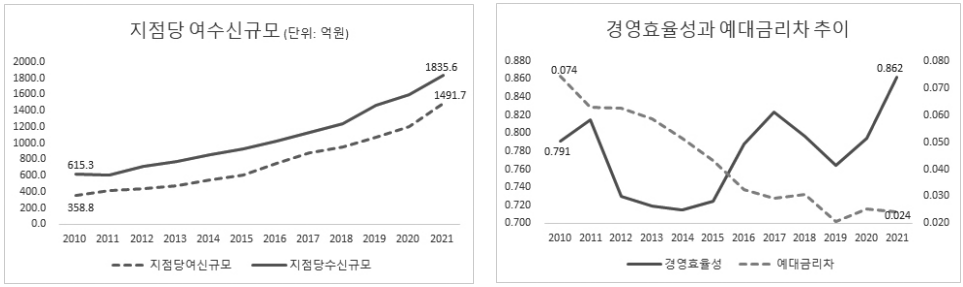


Fig. 4. 새마을금고의 성인인 거 10만 명당 지점수 및 지점당 여수신 규모 변화 추이



Ⅲ. 선행연구의 검토

서민금융기관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기법을 활용해 경영효율성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기관의 효율성 검토를 위해 DEA 방식을 활용한 최근의 연구들로, 박진배(2010), 박춘광 · 김병철(2012), 정진호 · 임성묵(2014), 서충원 · 신연수(2016), 한영희 · 김영수(2016), 서충원(2017) 등이 있다. 이 중 서충원 · 신연수(2016)는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효율성이 높고,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한영희 · 김영수(2016)는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개선, 경쟁력 강화 노력을, 현영환(2017)은 새마을금고의 대출심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홍봉영 · 구정옥(2000)은 신용협동조합의 생산효율성을, 최정윤 · 남수현 · 강석규(2003)는 구조조정 과정의 수협중앙회의 경영효율성을, 노덕환 · 한승우(2002)는 군산지역 새마을금고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김병철(2011)은 13개 지역별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거리함수를 이용한 Malmquist 모형으로 생산성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배기수(2016)는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등의 경영효율성이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Railiene and Sineviciene(2015)는 규모가 클수록 비용효율성이 높지만, 비용효율성이 봉사활동 척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Tokle, Fullerton, and Walke(2015)는 미국의 신용조합의 자료분석으로 대출이자율 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규모의 경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민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분석한 연구들로, 오석훈(2010)은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권일숙 · 박래수 · 정윤영(2013)은 신용협동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운영수익성, 생산성 등이 수익성에 양(+)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배수현(2016)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비중이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현정환(2017)은 지역적 위치와 거시경제변수가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정현과 김대창(2019)은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에 금융자산 투자수익비율, 수지비율, 부동산자금대출비중, 금고규모 및 자기자본비율 등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Pasiouras and Kosmidou(2007)는 금융기관 규모가 클수록 수익성이 대체로 높음을,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수익성이 높음을 실증하면서, 금융기관의 낮은 자본조달비용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Abreu and Mendes(2002)는 위험자산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 금융기관 수익성에 양(+)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반면 Bourke(1989), Molyneux and Thornton(1992)은 위험 수준과 금융기관 수익성 간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는 고위험 대출금에 노출된 금융기관일수록 부실대출금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자기자본비율은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데, 이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자본조달비용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서민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로, McKillop and Wilson(2011)은 서민금융기관은 주주와 고객이 모두 조합원이기 때문에 예금자와 대출자 간 이해상충은 없지만, 대출받은 조합원과 예금한 조합원 간에는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Louis et al.(2013)은 서민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적 성과는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Railiene and Sineviciene(2015)는 서민금융기관은 회원이나 조합원에 대해 낮은 대출이자율과 높은 예금이자율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중적 목표로 인해 서민금융기관의 이익창출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IV. 실증분석

1. 금융포용지수

Sarma(2008)는 '성인인구 천명당 은행계좌수', '인구 10만 명당 지점 수', '경제규모(GDP) 대비 여수신 비율'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금융포용지수(IFI; Index of Financial Inclusion)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비교하였다. Park and Mercado(2015)는 Sarma(2008)의 금융포용지수 방법론을 활용하여 투입변수로 'GDP 대비 예금액' 대신 '전체 인구 중 예금자 및 대출자수 비중'을 적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들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를 새마을금고의 9개 권역(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2] 단위로 구분・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Sarma(2008)는 금융포용지수를 '금융기관의 확산'과 '금융서비스의 제공',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의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도 이를 따라 '성인인구 10만 명당 지점수',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 '지점당 여신규모(억 원)', '지점당 수신규모(억 원)', '전체 대출금 대비 정책자금 대출 비율' 변수들로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하였다. 즉, '성인인구 10만 명당 지점수'와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은 '지역 내 금융기관의 확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고, '금융서비스의 제공정도'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여수신 규모'로 파악한다. 그리고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정도는 '전체 대출규모 대비 정책자금 대출 비율'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정책자금대출은 지역 내 정책금융의 수요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별도로 집계된다.

본 연구의 새마을금고 금융포용지수 산출은 다음 식(8)을 활용한다. 즉, t연도의 변수 j에서 전국의 시・군・구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i)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d_{ij,t}$)[3]를 먼저 산출하고, 이를 통해 t연도의 권역별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 $IFI_{i,t}$[4]를 계산한다.

$$d_{ij,t} = \frac{A_{ij,t} - m_{jt}}{M_{jt} - m_{jt}}$$

M_{jt}: t시점 표본 중 j번째 변수의 최대값, m_{jt}: t시점 표본 중 j번째 변수의 최소값
$A_{ij,t}$: 권역별 새마을금고 i의 변수 j에 대한 실제값

2)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없는 대신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한도(신규대출의 3분의 1)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저축은행은 6개의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제주, 충청 등의 6개 권역이고, 신협은 지난 2020년 말에 10개 권역으로 확대・설정되었다.

3) 본 연구에서 j는 1~5의 변수 개수이고, t는 2010~2021의 연도이며, i는 1~9개 권역이다. 예를 들어, 서울인천경기 권역(i=1)의 금융포용지수는 서울특별시의 각 구, 인천광역시의 각 구, 경기도 내 각 시와 군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j 변수들로 계산된다.

4) 금융포용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금융포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arma(2008)는 이 금융포용지수에 대해 NAMPUS(normalization, anonymity, monotonicity, proximity, uniformity and signaling)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는 금융기관의 지역 단위 금융포용 정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산출 방식이라고 하였다.

$$IFI_{i,t} = 1 - \frac{\sqrt{(1-d_{i,1,t})^2 + (1-d_{i,2,t})^2 + \cdots + (1-d_{i,n,t})^2}}{\sqrt{n}} \quad (1)$$

n: 변수의 개수

〈Table 1〉은 식(1)과 같이 산출된 최근 12년 동안의 새마을금고의 권역별 금융포용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금융포용지수를 전국 각 시·군·구 단위별로 산출한 후, 이를 권역 단위의 기초통계량으로 산출한 것이다. 결과로부터, 먼저 새마을금고의 권역별 금융포용지수는 제주가 24.4%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Table 1. 권역별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 기술통계량

Classification	N	Mean	Std	Min	Max
서울인천경기	869	0.156	0.060	0.059	0.377
부산울산경남	491	0.152	0.048	0.059	0.308
대구경북	384	0.137	0.037	0.059	0.236
대전세종충남	248	0.165	0.042	0.081	0.319
광주전남	283	0.147	0.037	0.069	0.275
충북	160	0.148	0.038	0.068	0.241
전북	180	0.147	0.037	0.065	0.224
강원	204	0.146	0.037	0.073	0.224
제주	24	0.244	0.030	0.192	0.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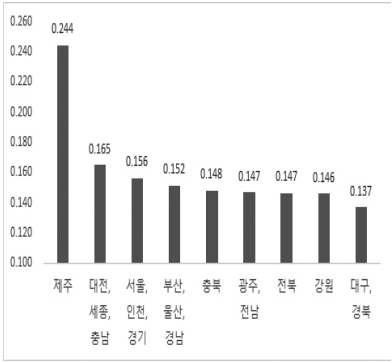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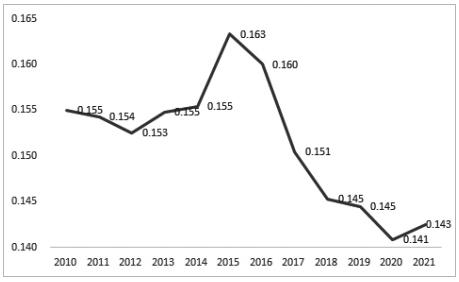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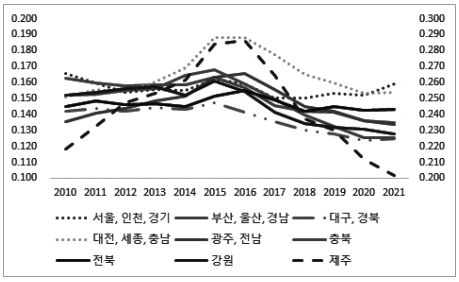


Fig 5.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 추이(2010~2021)



〈전국 금융포용지수의 최근 12년 추이〉



〈권역별 금융포용지수의 최근 12년 추이〉

〈Fig. 5〉는 새마을금고의 전국 및 권역별 금융포용지수의 최근 12년간 추이를 보여주는데, 먼저 전국 단위에서 2015년 16.3%의 정점 이후 2020년 14.1%까지 빠르게 하락한 이후 2021년 소폭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이는 권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제주의 금융포용지수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고, 대전·세종·충남의 경우에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2〉는 금융포용지수와 이를 산출하는데 포함되는 다양한 요인들의 기술통계량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전국 시·군·구 단위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는 평균 약 15.2% 수준으로, 성인인구 10만 명당 지점수는 약 3.8개, 조합원당 출자금은 약 47만 원, 대출금 대비 정책자금 비중은 1.9%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Table 3〉은 이들의 상관계수로, 금융포용지수(IFI)는 대출금 대비 정책자금 비중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과 대체로 40%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점당 여신규모와 지점당 수신규모의 상관관계가 97.4%로 높게 나타나, 선형 회귀분석 과정에서는 이들 중 지점당 수신규모를 제외하고, 지점당 여신규모 변수만을 고려한다.

Table 2. 금융포용지수의 기초통계량

Classification	N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IFI	2,843	0.152	0.059	0.377	0.048
10만명당지점수	2,843	3.837	0.215	18.649	2.889
조합원당출자금	2,843	470202.593	26249.738	2175609.425	261461.459
ln(지점당여신규모)	2,843	24.695	21.810	27.862	0.839
ln(지점당수신규모)	2,843	25.077	22.941	27.961	0.752
대출금대비정책자금	2,843	0.019	0.000	0.446	0.027

Table 3. 금융포용지수 산출요인 간 상관관계

Classification	(2)	(3)	(4)	(5)	(6)
(1) IFI	.177**	.407**	.436**	.456**	.086**
(2) 10만명당지점수	1	.008	-.381**	-.412**	.019
(3) 조합원당출자금		1	.494**	.452**	-.246**
(4) 지점당여신규모			1	.974**	-.446**
(5) 지점당수신규모				1	-.412**
(6) 대출금대비정책자금					1

Notes: p: **<0.01

다음으로, 금융포용지수에 대해 이들 요인이 각각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본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Table 4〉로부터 4가지 특성요인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점수가 많을수록, 조합원당 출자금이 클수록, 대출금 대비 정책자금 비중이 높을수록, 지점당 여신 또는 수신 규모가 클수록 금융포용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IFI_i = \alpha_i + \beta_1 F_{1,i} + \beta_2 F_{2,i} + \cdots \beta_4 F_{4,i} + \epsilon_i \quad (2)$$

Table 4. 금융포용지수에 대한 특성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nstant		-34.759	0.000	
10만명당지점수	0.443	29.232	0.000	1.285
조합원당출자금	0.153	9.645	0.000	1.408
대출금대비정책자금	0.724	38.341	0.000	1.996
지점당여신규모	0.437	28.809	0.000	1.291

Notes: 1. Dependent Variable: 금융포용지수(IFI).
2. Model Summary: R^2=.493, Modified R^2=.493, F-Value=690.813, Significance=.000.

2.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 및 다양한 특성요인이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 즉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공공성 등에 대한 영향력을 각각의 검증가설하에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한다. 〈Table 5〉는 새마을금고 주요 경영지표의 기초통계량을, 〈Table 6〉은 금융포용지수(IFI)와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와의 상관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5. 새마을금고 주요 경영지표의 기초통계량

Classification	N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IFI	2,843	0.152	0.059	0.377	0.048
부실여신비율	2,843	0.006	0.000	0.102	0.007
ROA	2,843	0.006	-0.012	0.021	0.004
경영효율성	2,843	0.777	0.406	1.000	0.101
직원1인당거래자수	2,843	340.156	52.611	1635.727	171.956
ln(총자산)	2,843	26.397	23.045	29.462	1.246
순자본비율	2,843	0.037	0.007	0.085	0.013
담보대출비율	2,843	0.945	0.660	0.997	0.055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2,843	0.013	0.005	0.028	0.003

Table 6. 새마을금고의 주요 경영지표 간 상관관계

Classification	(2)	(3)	(4)	(5)	(6)	(7)	(8)	(9)
(1) IFI	-.119**	.125**	.305**	.349**	.469**	.479**	.142**	-.240**
(2) 부실여신비율	1	.178**	-.116**	-.160**	-.297**	-.227**	-.353**	.245**
(3) ROA		1	.131**	.047*	-0.029	-.047*	-.112**	.123**
(4) 경영효율성			1	.167**	.375**	.243**	.190**	-.245**
(5) 직원1인당거래자수				1	.464**	.169**	.452**	-.353**
(6) ln(총자산)					1	.303**	.570**	-.568**
(7) 순자본비율						1	.119**	-.151**
(8) 담보대출비율							1	-.476**
(9) 판매비·관리비비율								1

Notes: p: **<0.01

1) 안정성 분석

금융기관은 자산의 안정성 또는 건전성을 위해 순자본비율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위험자산보다는 가능한 안전자산 위주의 재무관리 및 투자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자산의 비건전성은 연체비율, 부실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5] 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들 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으면 자산건전성이 우량하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들 중 본 절에서는 새마을금고 자산의 건전성 지표로 '부실여신비율'을 선택하고, 다음의 가설 #1(H1)을 검증한다.

H1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의 안정성(부실여신비율)은 높다(낮다).

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채권과 여신성가지급금의 합계액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부실여신의 비율을 나타낸다.

$$DEF_i = \alpha_i + \beta_1 F_{1,i} + \beta_2 F_{2,i} + \cdots \beta_4 F_{4,i} + \epsilon_i \quad (3)$$

DEF: 부실여신비율, F: 금융포용지수의 특성요인

〈Table 7〉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안정성)에 금융포용지수 특성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로부터 대출금 대비 정책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유의적 영향력이 확인되고, 구체적으로 성인인구 10만 명당 지점수, 조합원당 출자금, 지점당여신규모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여신비율(자산의 비건전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특성요 인들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Table 7. 부실여신비율에 대한 금융포용지수 특성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nstant	-	10.479	0.000	-
10만명당지점수	-0.043	-2.156	0.031	1.285
조합원당출자금	-0.150	-7.121	0.000	1.408
대출금대비정책자금	0.031	1.536	0.125	1.291
지점당여신규모	-0.225	-9.005	0.000	1.996

Notes: 1. Dependent Variable: 부실여신비율
2. Model Summary: R^2=0.077, Modified R^2=0.076, F-Value=59.154, Significance=.000.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지표가 이의 안정성(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Table 8〉은 이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먼저 금융포용지수(IFI)는 비유의적이지만, ROA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여신비율에 양(+)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고위험-고수익 자산관리 전략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자산규모가 클수록, 순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담보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이 존재함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여신비율이 높은 것은 과도한 영업비용은 오히려 자산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DEF_i = \alpha_i + \beta_1 IFI_{1,i} + \lambda_1 K_{1,i} + \cdots + \lambda_7 K_{7,i} + \epsilon_i \quad (4)$$

IFI: 금융포용지수, K: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

Table 8. 부실여신비율에 대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의 회귀분석 결과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nstant		13.186	0.000	
IFI	0.031	1.420	0.156	1.701
ROA	0.129	7.266	0.000	1.094
경영효율성	-0.011	-0.580	0.562	1.238
직원1인당거래자수	0.030	1.461	0.144	1.458
ln(총자산)	-0.093	-3.562	0.000	2.358
순자본비율	-0.173	-8.792	0.000	1.347
담보대출비율	-0.261	-11.608	0.000	1.754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0.042	1.956	0.051	1.593

Notes: 1. Dependent Variable: 부실여신비율.
2. Model Summary: R^2=.185, Modified R^2=.182, F-Value=80.304, Significance=.000.

2) 수익성 분석

일반적으로 기업 수익성의 측정은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등의 다양한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을 '총자산순이익률(ROA)'로 측정하고, 이를 활용해 다음의 가설 #2(H2)를 검증한다.

H2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높다.

$$ROA_i = \alpha_i + \beta_1 F_{1,i} + \beta_2 F_{2,i} + \cdots \beta_4 F_{4,i} + \epsilon_i \quad (5)$$

ROA: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 F: 금융포용지수의 특성요인

〈Table 9〉는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에 금융포용지수 관련 특성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것이다. 분석 결과로부터 대출금 대비 정책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조합원당 출자금은 음(-)의 영향력을, 대출금대비정책자금과 지점당여신규모는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제고에 여신규모와 정책자금취급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조합원당 출자금을 높이는 전략은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9. ROA에 대한 금융포용지수 특성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nstant	-	-0.931	0.352	-
10만명당지점수	-0.026	-1.282	0.200	1.285
조합원당출자금	-0.124	-5.811	0.000	1.408
대출금대비정책자금	0.256	12.491	0.000	1.291
지점당여신규모	0.080	3.149	0.002	1.996

Notes: 1. Dependent Variable: ROA.
2. Model Summary: R^2=.110, Modified R^2=.109, F-Value=88.012, Significance=.000.

$$ROA_i = \alpha_i + \beta_1 IFI_{1,i} + \lambda_1 K_{1,i} + \cdots + \lambda_7 K_{7,i} + \epsilon_i \quad (6)$$

IFI: 금융포용지수, K: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

Table 10. ROA에 대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의 회귀분석 결과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nstant		1.281	0.200	
IFI	0.165	7.181	0.000	1.672
경영효율성	0.162	8.297	0.000	1.209
직원1인당거래자수	0.092	4.303	0.000	1.450
ln(총자산)	-0.013	-0.479	0.632	2.368
순자본비율	-0.115	-5.543	0.000	1.369
담보대출비율	-0.069	-2.875	0.004	1.832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0.142	6.373	0.000	1.573
부실여신비율	0.142	7.266	0.000	1.204

Notes: 1. Dependent Variable: ROA.
2. Model Summary: R^2=.103, Modified R^2=.100, F-Value=40.466, Significance=.000.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지표가 이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인 〈Table 10〉으로부터, 먼저 금융포용지수, 경영효율성, 직원1인당거래자수,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부실여신비율은 모두 수익성에 유의적 양(+)의 영향력을, 순자본비율과 담보대출비율은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영업비용과 부실여신비율의 양(+)의 영향력은 이른바 영업력 확대 전략이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에는 긍정적일 수 있음을, 순자본비율 상승 또는 담보대출 확대는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제고 전략으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효율성 분석

많은 선행연구들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6]로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측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활용해 왔다. 본 절에서도 DEA 방법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을 측정하여 다음의 가설 #3(H3)의 검증에 활용한다.

H3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이 높다.

먼저 금융포용지수와 관련한 요인들이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지표에 각각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본 〈Table 11〉은 모든 변수들이 유의적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이의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전략, 금융포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FFICIENT_i = \alpha_i + \beta_1 F_{1,i} + \beta_2 F_{2,i} + \cdots \beta_4 F_{4,i} + \epsilon_i \quad (7)$$

$EFFICIENT$: DEA를 통해 추정된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지표, F: 금융포용지수의 특성요인

Table 11. 경영효율성에 대한 금융포용지수 특성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nstant	-	-12.163	0.000	-
10만명당지점수	0.221	12.177	0.000	1.285
조합원당출자금	0.113	5.942	0.000	1.408
대출금대비정책자금	0.068	3.724	0.000	1.291
지점당여신규모	0.519	22.947	0.000	1.996

Notes: 1. Dependent Variable: EFFICIENCY.
2. Model Summary: R^2=.272, Modified R^2=.271, F-Value=265.276, Significance=.000.

$$EFFICIENT_i = \alpha_i + \beta_1 IFI_{1,i} + \lambda_1 K_{1,i} + \cdots + \lambda_7 K_{7,i} + \epsilon_i \quad (8)$$

IFI: 금융포용지수, K: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

6) 이는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프론티어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를 도출한 다음, 이들 의사결정단위와 나머지 의사결정단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한다.

Table 12. 경영효율성에 대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의 회귀분석 결과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nstant		2.579	0.010	
IFI	0.104	4.751	0.000	1.689
직원1인당거래자수	-0.053	-2.589	0.010	1.456
ln(총자산)	0.268	10.512	0.000	2.279
순자본비율	0.112	5.691	0.000	1.368
담보대출비율	0.007	0.316	0.752	1.837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0.081	-3.803	0.000	1.587
부실여신비율	-0.011	-0.580	0.562	1.227
ROA	0.146	8.297	0.000	1.088

Notes: 1. Dependent Variable: 경영효율성.
2. Model Summary: R^2=.192, Modified R^2=.190, F-Value=84.436, Significance=.000.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지표가 이의 경영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Table 12〉로부터, 담보대출비율과 부실여신비율은 비유의적이지만, 금융포용지수, 자산규모, 순자본비율, ROA 등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지표에 양(+)의 영향력을, 직원1인당 거래자수,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은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와 클수록, 순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을수록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이 높지만, 직원 1인당 거래자수와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높은 것은 오히려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공익성 분석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에 예대마진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데도 금융협동조합은 영리추구보다 재무적 안정성에 기반한 조합원의 이익과 상호부조에 노력해야 하므로,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을 가능한 포용하고 조합원의 상호부조에 기여하기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예대금리는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공익성 분석을 위해 다음의 가설 #4(H4)를 검증한다.

H4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의 공익성(예대금리차)는 높다(낮다).

먼저 금융포용지수와 관련한 요인들이 새마을금고의 공익성(예대금리차) 지표에 각각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Table 13〉은 모든 변수들이 유의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성인인구 10만 명당 지점수, 조합원당 출자금, 대출금 대비 정책자금 비중은 새마을금고의 예대금리차에 음(-)의 영향력을, 지점당 여신규모는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지점수가 많을수록, 조합원당 출자금이 클수록, 그리고 정책자금 비중이 높을수록 예대금리차는 낮고, 여신규모가 클수록 예대금리차가 큰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새마을금고의 지점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그리고 여신규모의 확대를 추구하는 지점의 경우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살펴볼 수 있다.

$$\Delta R_i = \alpha_i + \beta_1 F_{1,i} + \beta_2 F_{2,i} + \cdots \beta_4 F_{4,i} + \epsilon_i \quad (9)$$

ΔR: 새마을금고의 예대금리차, F: 금융포용지수의 특성요인

Table 13. 예대금리차에 대한 금융포용지수 특성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nstant	-	26.952	0.000	-
10만명당지점수	-0.117	-7.380	0.000	1.285
조합원당출자금	-0.204	-12.261	0.000	1.408
대출금대비정책자금	-0.450	-22.755	0.000	1.996
지점당여신규모	0.196	12.296	0.000	1.291

Notes: 1. Dependent Variable: 예대금리차.
2. Model Summary: R^2=.444, Modified R^2=.443, F-Value=566.469, Significance=.000.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지표가 이의 공익성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Table 14〉로부터 직원 1인당 거래자수와 담보대출비율은 비유의적이지만, 금융포용지수,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부실여신비율, ROA 등은 새마을금고의 공익성 지표에 양(+)의 영향력을, 총자산규모, 순자본비율은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지역 내 영업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금융포용지수,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부실여신 비율, ROA) 수준이 높을수록 예대마진을 가능한 낮추고,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와 자본금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위해 예대마진을 높이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Delta R_i = \alpha_i + \beta_1 IFI_{1,i} + \lambda_1 K_{1,i} + \cdots + \lambda_7 K_{7,i} + \epsilon_i \quad (10)$$

IFI: 금융포용지수, K: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

Table 14. 예대금리차에 대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의 회귀분석 결과

Classification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Constant		8.739	0.000	
IFI	0.197	11.242	0.000	1.703
직원1인당거래자수	-0.029	-1.791	0.073	1.459
ln(총자산)	-0.024	-1.149	0.251	2.368
순자본비율	-0.172	-10.890	0.000	1.384
담보대출비율	-0.028	-1.565	0.118	1.837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0.246	14.522	0.000	1.596
부실여신비율	0.228	15.295	0.000	1.227
ROA	0.295	20.810	0.000	1.114
경영효율성	-0.327	-21.853	0.000	1.238

Notes: 1. Dependent Variable: 예대금리차.
2. Model Summary: R^2=.403, Modified R^2=.401, F-Value=238.878, Significance=.000.

〈Table 15〉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금융포용 관련 변수들은 새마을금고의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공익성 전반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금융으로서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점수, 조합원의 참여도를 반영하는 출자금, 여신공급 규모 등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지만, 그 중 여신공급 규모의 증가는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및 효율성에는 긍정적이지만, 안정성과 공익성에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 경영지표 간 영향에서, 수익성은 새마을금고의 안정성과 공익성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효율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새마을금고의 공익성 추구는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효율성 제고는 공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특성 지표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에는 자산규모, 순자본비율, 담보대출비율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 직원1인당 거래자수,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높을수록, 순자본비율과 담보대출비율은 낮을수록 수익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새마을금고의 효율성에는 금융포용지수, 자산규모, 순자본비율은 긍정적 요인으로, 직원1인당거래자수와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부정적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의 공익성에는 직원 1인당 거래자수와 순자본비율은 양(+)의 영향력을, 금융포용지수와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5.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구분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공익성
금융포용	지점수	(+)		(+)	(+)
	출자금	(+)	(-)	(+)	(+)
	정책자금		(+)	(+)	(+)
	여신규모	(+)	(+)	(+)	(-)
경영지표	부실여신비율				(-)
	ROA	(-)		(+)	(-)
	경영효율성				(+)
	예대금리차		(+)		
특성요인	금융포용지수(IFI)		(+)	(+)	(-)
	직원1인당거래자수		(+)	(-)	(+)
	ln(총자산)	(+)		(+)	
	순자본비율	(+)	(-)	(+)	(+)
	담보대출비율	(+)	(-)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	(+)	(-)	(-)

Notes: 1. 빈칸은 비유의적 결과를 의미
2. 안정성과 공익성을 위한 경영지표인 부실여신비율과 예대금리차는 부정(-) 지표이므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분석결과의 계수 부호를 긍정(+) 지표로 전환하였음(즉, 분석결과에서 (-)의 베타값을 (+) 영향력으로 해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을 가능한 금융포용하고, 다양한 지역 내 금융수요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및 비효율성을 가능한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각 지역에 대한 금융포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는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을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별 금융포용 수준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재무 특성요인이 새마을금고의 주요 경영성과지표(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공익성)에 실제로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실증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전체적으로 2015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로 성인인구 10만 명당 지점수는 전국 단위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알려진 바와 다르게 단순히 새마을금고의 지점수 감소가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제주, 대전・세종・충남, 강원 권역에서의 성인인구 10만 명당 지점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금융포용지수의 하락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음은 예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금융포용 관련 변수들(‘성인인구 10만 명당 지점수’,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 ‘지점당 여신규모’, ‘지점당 수신규모’, ‘전체 대출금 대비 정책자금대출 비율’)은 새마을금고의 안정

성, 수익성, 효율성, 공익성 전반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지역금융으로서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점수, 조합원의 참여도를 반영하는 출자금, 여신공급 규모 등은 새마을금고의 주요 경영지표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주요 경영지표 간 영향에서, '수익성'과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과 '공익성'은 상호 간 양(+)의 관련성을 가지지만, 수익성 · 효율성과 안정성 · 공익성 간에는 상호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새마을금고의 공익성 추구는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효율성 제고는 공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재무특성 요인이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최근 새마을금고의 외형확장 전략에 따른 여신공급 규모의 증가는 새마을금고의 수익성과 효율성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안정성과 공익성에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에는 자산규모, 순자본비율, 담보대출비율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부정적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에는 금융포용지수, 직원1인당 거래자수,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높을수록, 순자본비율과 담보대출비율은 낮을수록 수익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효율성에는 금융포용지수, 자산규모, 순자본비율은 긍정적 요인으로, 직원1인당거래자수와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부정적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새마을금고의 공익성에는 직원 1인당 거래자수와 순자본비율은 양(+)의 영향력을, 금융포용지수와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우리나라 고유의 상호부조 정신을 기초로 결성된 주민조직으로서의 조합원 공동의 이익,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으로서의 영리 추구 등 다양한 특성에 따른 다양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마을금고가 어떠한 경영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역 단위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을 위한 노력은 수익성, 안정성, 효율성, 공익성 모두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짐을,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 효율성과 안정성 · 공익성의 추구는 일부 상충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즉,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은 효율성에, 그리고 효율성은 안정성 · 공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의 안정성과 공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스스로의 통제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여신공급은 가능한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과 경영효율성을 재고하는 보다 세밀한 금융공급 전략과 경영관리 역량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권일숙 · 박래수 · 정윤영 (2013), "신협의 수익성 결정요인 분석", 금융지식연구, 11(1), 141-170.

김병철 (2011), "거리함수를 이용한 지역별 새마을금고 생산성 변화 연구", *금융공학연구*, 10(3), 115-136.

박진배 (2010),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새마을금고의 효율성 분석", *새마을금고연구*, 20(1), 127-166.

박춘광 · 김병철 (2012), "DEA-CCR, DEA-BCC, 수정 DEA 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5(3), 1,341-1,360.

배기수 (2016), "경영효율성 분석을 통한 서민금융기관 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4(2), 297-316.

배수현 (2016),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이 수익성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역별 · 규모별 차이를 중심으로", *글로벌경영학회지*, 13(4), 181-205.

서충원 (2017), "새마을금고의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 DEA/WINDOW와 맴퀴스트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연구*, 27(1), 122-153.

서충원 · 신연수 (2016), "협동조합으로서 새마을금고의 효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2219-2238.

오석훈 (2010),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새마을금고연구, 20(1), 85-125.

정정현 · 김대창 (2019), "새마을금고 수익성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32(1), 139-168.

정진호 · 임성묵 (2014), “DEA-Malmquist 생산성 지수 분석방법을 응용한 대구경북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 분석”, *금융공학연구*, 13(1), 79-100.

최정윤 · 남수현 · 강석규 (2003), “한국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효율성 평가: 자료포락분석”, 수산경영논집, 34(2), 109-129.

한영희 · 김영수 (2016), “DEA 모형을 이용한 새마을금고 효율성 분석”, *국제회계연구*, 66, 99-120.

홍봉영 · 구정옥 (2000), “DEA를 이용한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성 평가”, *재무관리연구*, 17(2), 277-292.

현정환 (2017), “새마을금고 수익성 및 안정성과 지역거시경제간 관계분석”, *새마을금고연구*, 27(1), 91-122.

Abreu, M. and V. Mendes (2002), “Commercial Bank Interest Margins and Profitability: Evidence from E.U. Countries”, *Porto Working Paper Series*

Bourke, P. (1989), “Concentration and Other Determinants of Bank Profitability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ustrailia”,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3(1), 65-79.

Louis, P., Seret, A. and B. BAesens (2013), “Financial Efficiency and Social Impact of Microfinance Institutions using Self-Organizing Maps”, *World Development*, 46, 197-210.

McKillop, D. G. and J. O. S. Wilson (2011), “Credit Union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Journal of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Instruments*, 20, 79-123.

Molyneux, P. and J. Thornton (1992), “Determinants of European Bank Profitability: Evidence from EU 27 Banking Systems”,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20, 518-524.

Pasiouras, F. and K. Kosmidou (2007), “Factors Influencing the Profitability of Domestic and Foreign Commercial Banks in the European Unions”,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21(2), 222-237.

Railiene, G. and L. Sineviciene (2015), “Performance Valuation of Credit Unions having Social and Self-sustaining Aim”,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213, 423-429.

Tokle, R. J., T. M. Fullerton and A. G. Walke (2015), “Credit Union Loan Rate Determinants following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Social Science Journal*, 52, 364-373.